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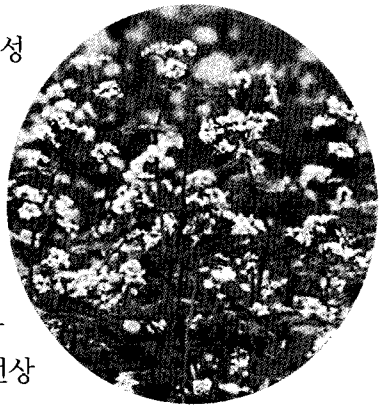
메밀 (학명 : *Fagopyrum esculentum*, 여뀌과)

메밀은 중앙아시아가 원산지며, 우리나라 전국의 산간 지방에서 재배하고 있다. 옛날에는 가뭄으로 모내기 시기를 놓쳤을 때 메밀을 심었지만, 지금은 건강식품으로 메밀묵을 만들기 위해 혹은 경관식물로 심고 있다.

1년생초본이며 높이 40-70cm이고, 원줄기는 갈라지며 속이 비어 있고 연한 녹색이지만 흔히 붉은 빛이 돈다. 잎은 호생(互生)하고, 엽병이 길며 심장형으로 끝은 뾰족하다. 양쪽 기부의 열편의 끝도 뾰족하며 칼집모양의 탁엽은 막질이고 매우 짧다.

7-10월에 꽃이 피며 백색 또는 연한 붉은 빛이 돌며, 수상화서(穗狀花序)는 엽맥과 가지끝에서 나오고 소화경 밑에 소포가 있으며 화피는 깊게 5개로 갈라지고 열편은 길이 2-3mm이며 난형이고 3개의 암술대가 있다.

10월에 열매가 성숙되며 수과(瘦果)는 날카롭게 세모진 난형이고 길이 5-6mm로 흑갈색으로 익으며 종자속의 자엽이 나선상으로 굽는다. 메밀은 이효석 씨의 단편 “메밀꽃 필 무렵”으로 우리들에게 잘 알려져 있다. 달빛에 비친 메밀꽃을 ‘소금을 뿌려놓은 듯’이라고 표현하였는데 딱 맞은 표현이다. 강원도 봉평의 이효석 씨의 생가를 찾았더니 그 집 앞에도 이제 메밀밭은 사라지고 도로 건설이 한창이었다.



메밀꽃 근경. “소금을 뿌려놓은 듯한”으로 표현한 이효석 씨의 표현이 얼마나 절묘한가?

“메밀꽃 필 무렵”을 쓴 이효석 씨의 생가 주변에 있는 메밀밭 풍경

